

◆ Coface, 해외투자보험업무 개선

Coface는 3월 1일 해외투자보험업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개선안은 보증범위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를 통해 투자자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1972년부터 해외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이나 이에 따른 자산몰수(expropriation), 외화반출 금지 등 광범위한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커버해온 Coface의 해외투자보험 업무는 현지법인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까지 보험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번 개선

을 통해서 보험계약자들은 자산몰수, 외화반출 금지 등 보험에 부보할 위험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산몰수보험의 경우 투자대상국 정부의 허가 철회, 업무에 필요한 정부의 이행의무 불이행까지 포함하여 현지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투자보험의 지원대상은 1,5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기업과 해당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다.

【안 선 우】

◆ Natexis, Coface와 공동으로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업무 개시

프랑스 Natexis Banques Populaires와 Coface는 영국 Londesborough Finance의 통신산업 국제매출채권(receivables)에 대해 공동으로 보증과 보험을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Natexis의 자회사인 Coface UK에 의해 주선된 이번 계약은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민간 신용보험회사(private credit insurer)와 무역금융기관(trade finance bank)이 협력한 사례가 되었다. Natexis와 Coface는 앞으로 Londesborough가 국제 통신량(cross border telecoms traffic)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매출채권(receivables)을 담보하게 된다. 이 매출채권(receivables)은 글로벌 통신도매시장(global telecommunications

wholesale interconnect market)에서 기초자산이 된다.

이전까지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receivables)은 가치산정이 어려워져 유통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Londesborough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매출채권(receivables)의 가치를 상세통화기록에 기초해 산정된 통신시간으로 평가하여 정확성을 높였고, 시장에서 유통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불위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이 요구되었으므로 Natexis와 Coface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Natexis, Coface와의 이번 보증·보험 계약으로 인해 Londesborough는 매출채권을 양도배서할 수 있게 되었고, 구